

“무료라고 판매한 후 수수료 폭탄”

금감원, 8개 카드사 채무면제 유예상품 불완전판매 등 8가지 불합리한 관행 개선키로

신용카드에 적립된 포인트가 소멸했는지를 제대로 알리지 않거나 가맹점이 등록을 늦게 해 할인·포인트 적립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여전히 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에는 수수료를 내면 사망, 입원 등 특정사고 발생시 미결제금액(채무)을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채무면제유예상품(DCLS)에 대한 불완전판매가 증가해 소비자 불만이 빚발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8개 카드사 대상 영업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DCLS 불완전판매와 부가서비스(포인트 포함) 등 8개 사항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한다고 16일 밝혔다.

조사를 벌인 뒤달 동안에만 채무면제유예상품(DCLS) 불완전판매가 13만건(약 141억원) 확인됐다.

DCLS는 신용카드사가 매월 회원으로로부터 일정률의 수수료(카드이용금액의 0.35% 수준)를 받고 회원에게 사망, 질병 등 사고가 발생했을 때 카드채무를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카드사는 DCLS를 판매하면서 고객에 대해 유료인데도 무료서비스인 것처럼 설명하거나, 매월 신용카드 사용액에 비례해 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사실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

가입 후에는 고객에게 휴대전화문자 서비스(SMS)로 가입사실만을 간략히 통지하고 매월 수수료 청구서에서도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 등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았다. 그러면서도 해지절차는 까다롭게 운영했다.

금감원은 고객의 가입의사를 확인토록 하는 등 표준스크립트 내용 등을 개선하고 수수료율, 수수료 금액을



“이건 조작입니다?” 홍동근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이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기자실에서 한국닛산 캐시카이 차량의 배기가스 시험 과정 사진을 들여보이며 배출가스순환장치가 작동 중단되는 현상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있다.

문자메시지, 우편물로 안내하고 신용카드 대금청구서에 신용판매 내역과 유료상품(DCLS, 리빙빙 등)별 수수료 내역을 별도 구분 표기토록 했다.

근본적으로는 DCLS 수수료의 구성 요소가 불합리하게 산출되지 않도록 매년 외부전문기관(보험개발원 등)의 감증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포인트 사용 민원도 다수 발생했다. 적립된 포인트가 사용 제한, 포인트 소멸 사실 안내 부족 등으로 유효기

간이 경과해 포인트를 쓸 수 없게 된 경우가 상당했기 때문이다.

연간 포인트 소멸액은 2013년 1201억원에서 2014년 1095억원, 작년 1~9월 843억원으로 다소 줄고 있는 있으나 여전히 매년 1000억원에 육박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대출금리 산정·운영 체계도 손질하기로 했다. 영업마진을 적정 계상하고, 차입비용 반영기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원가 산정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고객정보 보호를 위해서는 내부통제를 강화한다.

고객정보를 상품 연구·개발에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보안조치를 강화하고 임직원의 고객정보 무단조치 여부를 점검하는 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조치했다.

금감원은 이들 개선방안을 올해 말까지 자율이행토록 권고하고 개선방안 이행 여부를 분기별로 점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진수 기자

달러화 예금 516.8억달러 ‘사상 최대’

내국인과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 등이 지난해 보유한 외화예금이 두달 연속 증가세를 나타냈다. 특히 달러화 예금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이 16일 발표한 ‘2016년 4월말 외국환은행의 거주자외화예금’에 따르면 외화예금 잔액은 620억4000만달러로 전월말 대비 14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지난해 10월부터 올 2월까지 넉달 연속 감소했다가 3월 증가세로 전환된 뒤 두달째 상승했다.

이 중 달러화 예금은 전월 대비 34억1000만달러 늘어난 516억8000만달러로 사상 최대치를 나타냈다. 에너지 공기업 등의 해외채권 발행 자금이

늘었고, 대기업들이 수출대금을 예치하면서 증가세를 이끌었다.

반면 위안화 예금은 24억6000만달러로 한 달 전보다 22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해 4월 198억2000만달러를 정점으로 1년째 쪼그라들고 있다.

이밖에 엔화예금(35억9000만달러)은 전월대비 7000만달러 증가했다. 유로화 예금(30억9000만달러)과 영국 파운드 및 호주달러 등 기타통화 예금(12억2000만달러)은 각각 1억9000만달러, 5000만달러 늘었다.

주체별로는 기업예금은 9억8000만달러 늘어난 539억1000만달러, 개인예금은 4억9000만달러 증가한 81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인진수 기자

작년 은행 예대금리차 1%p대 ‘역대 최저’

지난해 국내 은행권의 예금과 대출금리 차이가 역대 최저 수준인 1%포인트대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금융감독원의 금융통계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말 국내 은행권의 원화 예대 금리 차이는 1.97%포인트로 1년 전 2.18%포인트보다 0.21%포인트 떨어졌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1999년 이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예대 금리 차이는 은행의 가장 기본

적인 수입원인 예금과 대출의 금리 차이를 말한다.

1999년 이후 3%포인트대를 유지하던 예대 금리 차이는 2008년 2.99%포인트로 떨어진 뒤 매년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 6월부터 1%포인트대에 진입했다.

작년 원화 대출금리(대출채권 평균이자율)는 평균 연 3.62%, 예금금리인 원화 예수금 평균이자율은 1.65%를 기록했다. /인진수 기자

“통신사들 연휴 때 최대 50만원 리베이트”

단통법에도 온라인서 불법 보조금... “소비자·중소 유통점 고사시켜 대책시급”

#1. 지난 5~8일 황금연휴. 뽕뿌 등 인터넷 커뮤니티와 네이버 밴드(BAND) 등 폐쇄형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삼성전자 갤럭시 S7, LG전자 G5 등에 최대 40만원(최고 요금제 기준)에 달하는페이백(정상개통 후 보조금 지급)이 실렸다는 글이 올라왔다.

휴대전화를 싸게 살 수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좌표(위치)’를 알려달라는 글이 뒤이었고, 실제 구매에 성공했다는 인증샷도 올라왔다. 업계에서는 황금연휴 관측

경쟁으로 과도한 리베이트가 지급됐고페이백 등 불법 영업으로 이어졌다고 설명한다. 황금연휴 기간 이동통신사 3사의 전체 번호이동건수는 5만건을 넘는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단말기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1년반이 지났지만 불법 보조금 등은 현재 진행형이다. 네이버 밴드 등 폐쇄형 SNS를 중심으로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 영업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건전한 소비자들과 유통점들을 보

호하기 위한 대책 정부차원의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 연휴기간 뽕뿌 등 온라인 사이트에는 최신 기종인 갤럭시S7, LG전자 G5를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을 받아 20만원대에 구매(번호이동)했다는 후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일반 유통점에서 휴대전화를 구입할 소비자는 불법 보조금 만큼 손실을 불수밖에 없는 상황. 불법 보조금 영업은 어디서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기 힘들어 정보를 가진 일부 소비자

만 수혜를 받게 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난 연휴 때 일부 이동통신사가 최대 50만원(판매장려금)에 달하는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면서 “리베이트를 토대로 일부 유통점들이 인터넷에서페이백 등 불법 보조금을 줬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등 비정규채널에서 일어나는 불법 보조금 마케팅은 소비자뿐만 아니라 가격경쟁에 동참할 수 없는 중소 유통점들도 고사시키고 있다.

한편,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근 기자 설명회에서 하반기 유통채널에 신분증 스캐너 도입이 완료되면 인터넷과 폐쇄형 SNS 등 비정규 채널에서 벌어지는 불법 보조금 지급 등 불법 영업이 상당부분 근절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인진수 기자



DIY 가구 통해 따뜻한 온기 전달

전주 현대차 가족봉사단, 직접 제작해 아동센터에 선물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공장장 이석동) 가족봉사단은 지난 14일 전주시 인후동 소재 나무로 만드는 세상에서 DIY(조립)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했다.

이날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은 이 회사 직원 및 가족들의 재능 기부를 바탕으로 정성들여 만든 DIY 가구를 제작 선물함으로써 12개 지역아동센터에 따뜻한 온기를 전달한다는 데 목적이 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와 전북 사랑의 열매가 함께 한 이날 봉사활동에는 이 회사 직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가해 DIY 가구 만들기 체험 등 작업을 진행하며 값진 구슬땀을 흘렸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가족봉사단은 오는 21일에도 직원 및 가족 4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2차 DIY 가구 만들기 봉사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원주=이종복 기자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이메일: ndtherapy119@gmail.com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